

직물용어 해설-03

* 드레이프(Drape)

선염한 두꺼운 길내 장식용 직물

* 드릴(Drill)

경사, 위사에 비교적 굵은 실(보통 Ne18's)을 사용하여 2/1 또는 3/1으로 제작한 능직물.

* 디머티(Dimity)

면, 폴리에스터, 리넨 등의 섬유를 사용한 평직의 얇고 울이 성기어 투과하여 보이는 직물이다. 촉감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광택이 있다. 반드시 세로 줄무늬라던가 격자 상으로 평평한 이랑이 짜여져 있다. 바닥 실과 같은 변수의 단사를 2올이던지 3올 또는 그 이상의 올 수 짝을 배열한 것을 인치당 6~8개소에 만들어 직물 면에 가로 이랑의 줄무늬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로 이랑과 세로 이랑으로써 격자로 짜서 나타내기도 한다.

Dimity는 그리스어의 dimitos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쌍사 또는 2올 나란히 배열한 경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여름용 드레스, 유아복, 아동 드레스, 내의, 에이프런, 베드 스프레드, 커튼 전등의 갓, 테이블 덮개, 자수지, 커터, 파자마, 쇼트 등으로 사용한다.

* 라메(Lame)

금속사와 모, 견,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나일론, 비닐론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제직사 중에 절박(금박, 은박)이나 금은사라던가 금속 광택을 가진 금속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을 가리킨다. 자카드로 모양을 나타낸 고급 조직의 직물이 많다. 지조직능 평직, 사문직, 주자직 기타 변화 조직 등 여러 가지이다. 라메의 제직사인 금속사는 대별하여 절박과 금은사로 나누어진다. 절박은 금, 은, 주석, 알루미늄 등의 금속 박을 가늘게 절단하여 실의 상태로 한 것이다. 금은 색이 많으나 다른 색으로 착색한 것도 있다.

폴리에스터 필름에 알루미늄박을 접착한 것이라던가 알루미늄을 폴리에스터 필름에 진공 증착한 절박은 세탁에도 견디고 응용의 범위가 넓다. 금은사는 섬유인 실을 심사로 하고 금속의 절박을 라선상으로 꼬아 붙인 것이다. Lame는 프랑스어로써 금은 등의 금속박의 의미이다. 이브닝드레스, 블라우스, 장식, 여성모자, 포대 등이다.

* 라사(羅紗, Rhaxa)

모,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포르투갈 어의 라사(Rhaxa), 즉 모포라는 의미에서 온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두꺼운 방모 직물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평직 또는 능직으로 제작한 직물이다. 제작후 축융, 기모한 두꺼운 모직물을 일컫는다.

* 라티누(Ratine)

Ah,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견,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장식사의 명칭임과 더불어 그러한 장식사로 제작한 직물의 명칭도 있다. 직물의 라티누는 위사라던가 경위사의 양쪽에 라티누사, 쇠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밀도는 성겨서 투과하여 보인다. 라티누사 독특한 거칠고 큰 매듭이 한 면으로 나타나서 해면(海綿)과 같이 보인다. 촉감은 부드럽고 두껍게 느껴진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면제품은 스폰지 클로스라고도 한다. Ratine는 프랑스어로써 가늘게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드레스, 블라우스, 코트, 신사복, 커튼 등에 사용된다.

* 라펫트(Lappet)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라펫트 직기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의 직기로써 제작한다. 구식 장치로써는 제작하는 모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야시막용 직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최근 모양사를 직입 장치로 긴 톱을 사용하는 개량형이 발명되어 뛰어난 무늬가 제작되게 되었다. 레이스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다운 웨어로써의 용도가 열렸다. 야시막은 Yashmac, yashmagh, yashmag 이라고 발음한다. 원어는 아라비아어로

써 yashmaq, 회교도가 머리에 뒤집어쓰는 천이다. 용도는 다운 웨어, 야시막 등이다.

* 래핑 클로스(Lapping cloth)

모직물의 정리가공에 사용하는 축융기 등의 언더 클로스로 사용되는 두꺼운 고급 면직물

* 론(Lawn)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리넨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경위사에 Ne 60's 이상의 가는 면단사를 사용하여 밀도를 적게 한 평직으로 하고 표백하여 얇은 코팅 가공을 한 면직물로 얇고 올이 투과되어 보인 촉감이 약간 거친 직물이다. 면 론은 경위사에 60's~100's의 정소면사로써 밀도를 성기게 평직으로 제작한다. 가호를 하지 않던지 뭉게 가호를 한다. 원래 얇은 리넨 론을 모방한 것으로써 촉감은 유연하면서 리넨 감이 있다. 그러한 딱딱함은 보일 보다는 약간 부드러우나 오건디 보다는 상당히 부드럽다 세탁하면 풀이 빠져 딱딱함이 빠진다. 표백, 무지염, 날염한다. 굵은 줄무늬 사를 사용하여 구배를 넣은 것도 있다. 경위사에 40's 정도의 단사를 사용하여 성긴 평직으로 하여 표백하여 딱딱하게 가호를 한 것을 한냉사(寒冷紗 : Victoria lawn)라고 한다. 햇빛 가리개, 양산, 인형에 사용한다. 론은 원래 얇은 마직물으로써 프랑스의 Laon이 원산지이다. 그의 명칭을 취하여 직물 명으로 한 것이다. 유아 아동복, 드레스, 블라우스, 네글리제, 옷깃 장식, 커튼, 베드 스프레드, 손수건, 조화, 자수 등에 사용된다.

* 롤러 클로스(Roller cloth)

방적용 롤러에 감는 데 사용하는 직물의 일종

* 룡기(Loongye, Lungie, Lngie)

미얀마, 인도 등에서 사용하는 직물의 일종

* 리넳(Linnet)

면 또는 화학섬유 직물에 의마가공을 한 직물(가구용 덮개, 여름용 셔츠,

손수건, 여성복 등)

* 마키젯트(Marguisett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는데 경위사에 보일 꼬임(견사로써 1,400~1,600T/M, 인견사 120d로써 1,000T/M 정도, 면 100's/2로써 1,500~1,800 T/M)을 준 실을 사용하여 얇힘직으로 제작한 얇고 영성하여 투과하여 보이는 직물이다. 원래는 견직물이었으나 현재는 인견이 많다. 두께는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다. 밀도도 다양하여 거친 것, 가는 것 여러 가지이다. 촉감도 딱딱한 것이라던가 부드러운 것이 있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전착 날염한 것도 있다. 도비라던가 자카드로 모양을 나타낸 것도 있다. 커튼, 이브닝 드레스, 원피스, 블라우스, 아동복, 베드 스프레드, 장식용품, 양산지 등으로 사용한다.

* 말(Mull)

조직 : 평직

섬유 : 면, 레이온, 견,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경사에는 34's~40's, 위사에는 경사보다 가는 번수를 사용하여 밀도를 성기고 평직으로 한 얇은 직물이다. 언뜻 보아 단사 보일에 근사하지만 제직사가 약간 굵어 거칠다. 표백하고 아주 연하게 가호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Mull은 힌두스탄 어와 페르시아어의 malmal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직물은 경사를 세번수의 면사, 위사를 생사로 제작한 얇고 성긴 직물로써 부드러운 촉감과 광택이 있다. 터번, 벨, 유아복, 아동복, 셔츠 등에 사용한다.

* 멀티 덜 태피터(Multi dull taffeta)

경사, 위사에 무연 무광사를 사용하고 위사의 밀도가 레이온 평직보다 높은 속직물.

* 메틀라세(Matelase, Matelasse) : 2중직을 응용하여 요철의 무늬를 나타낸 직물이며 피케 등과 같은 조직에 속한다. 겉과 속의 2중 조직을 접결한 접

4절점을 특히 명료하게 겹과 속에 나타내어 무늬를 짜낸 것이다. 이 접결에 의하여 낮아진 곳을 접결 무늬라 말하고 반대로 접결하지 않고 표면에 부풀어 오른 곳을 부출 무늬라고 한다. 용도는 조끼, 외투, 여성용 상의 등에 쓰이며 표면 직물에는 견 또는 상등의 소모사를 쓰고, 뒷면 직물에는 면 또는 방모사와 같은 것을 쓴다. 또 심을 넣기도 한다.

* 멜턴(Melton)

모,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주로 경위사에 태번수의 부드러운 방모사를 사용하고 평직이라던가 사문직으로 제직한 후 잘 축융하여 직물면의 잔털을 극히 짧게 전모 한다. 소위 멜턴 마무리를 한다. 직물면은 평활 하고 권축된 털이 배열되어 한 면을 덮여져 있게 보인다. 촉감은 부드럽다. 필염과 원모염이 있다. 모두 무지로서 흑색, 감색, 녹색, 다색 등의 색상이 많다. 광택은 전혀 없다. 따뜻한 감이 있다. 경위사에 소모사를 사용하여 제직하고 멜턴 마무리한 것이나 경사에 면이라던가 비스코스 스테이플, 아세테이트 스테이플을 사용한 것이라던가 비닐론, 아크릴 등의 합섬 혼방으로 한 것이 있다. 얇고 성긴 것으로써 여성 복지용을 멜트네트(Meltonette)라고 한다. 멜턴이라는 명칭은 영국의 세레스터 주의 유명한 여우의 수렵지 멜턴 모우브레이(Melton Mowbray)에 기인한 명칭일 것이다. 오버, 재킷, 제복, 사냥복 등에 사용한다.

* 면 크레이프(cotton Crepe)

면, 레이온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양쪽 축과 한쪽 축이 있다. 양쪽 축은 경사에 30's 정도의 보통 단사, 위사에는 20's 정도의 단사로 강연(30TPI)을 준 것을 사용한다. 좌연과 우연 2올씩 교호로 타입하고 평직으로 제직한다. 제직 후 주름 부여를 한다.

한쪽 축은 실의 사용은 양쪽 축과 같으나 위사에는 좌연이라던가 우연의 어느 한쪽의 강연사만을 사용한 것이다. 주름 내기를 하면 편축면의 특

유한 가로 주름(한쪽 주름, 요루라고도 한다)이 나타난다. 통상, 경사 줄기 상태의 요철이 있는 2분의 엠보싱 롤러를 통과시켜 주름축의 형을 정리한다. 이것을 요루 또는 피케를 건다고 한다. 강연사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샐리감(사각 사각한 감)이 있고 직물에 경사 방향으로 요철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착용함을 흘려도 피부가 끈적거리지 않고 착용감이 좋다. 표백한 백색 원단이라던가 옅은 색으로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사염한 것도 있다. 면 또는 레이온 크레이프를 단순히 크레이프라고 부르는 것도 많다. 지리멘과 같이 S연/Z연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양측과 편측이 있으며 어느 것이던 직물이 가볍고 밀도가 적어서 통기성이 풍부하며 직물 면에 요철이 있어서 시원한 감촉 이른바 까칠까칠한 감이 있어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한여름의 의류용에 적합한 직물이다. 여름철 내의 슬리브, 네글리제, 홈웨어, 블라우스, 원피스 등에 사용한다.

* 모로케인 크레이프(Morocain crepe)

① 경사에는 생사, 위사에는 Z연 강연사를 2올 합사한 생사와 S연 강연사를 합사한 강연사를 교대로 넣은 직물

②경사에 레이온사, 위사에 S와 Z강연 레이온사를 2올 교대로 사용하고 곰보가 심하게 나타난 크레이프의 일종

* 모본단

주자 바탕에 단일색이고 법단보다 무늬가 큰 견직물

* 모스 크레이프(Moss Crepe)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얇은 비로드와 같은 외관의 직물로써 경위사에 제연사를 사용한다. 조직은 사문 또는 주자의 유도 조직이 많이 이용된다. 경위 또는 표면으로 길게 부출되지 않도록 사문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규칙하게 조직 점을 배치한 것이다. 스판 레이온 모스 크레이프는 경위사에 태번수의 제직사를 사용한다. 인견 모스 크레이프는 하연 2,500T/M, 상연 400T/M 정도의 제연사를 경위

사로 사용한다. 이지조직과 제직사의 굵기와 제직사의 꼬임에 의한 광선의 반사 효과에 의하여 직물면에는 이지직 보다도 약간 큰 입자의 작은 울퉁불퉁함이 한 면을 덮고 있는 듯이 보인다. 흰색 또는 무지염하기도 하고 날염하기도 하여 사용한다.

모스 크레이프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끼와 같은 느낌을 주는 변화 크레이프를 가진 직물로써 특수한 지리멘사를 경위사에 사용하여 이지직으로 제직한 것이다. 실은 120d 정도의 레이온사에 지리멘과 같은 강연을 주어 여기에 동일한 굵기의 실을 합사하여 하연으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450T/M 정도의 상연을 가하여 이 실을 경위사로 사용하여 제직하면 크레이프를 발현하고 경위사 방향으로 약 20% 정도 줄어든다. 동시에 직물이 두꺼워지고 조직의 변화에 따라 특수한 요철이 나타나며 아문젠 조직보다 약간 큰 크레이프 조직을 갖는 직물로 직물의 표면이 고운 “이끼”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용도로는 주로 여성복, 아동복, 안감 등이다.